

01. ③ 02. ⑤ 03. ④ 04. ② 05. ⑤ 06. ① 07. ④ 08. ⑤ 09. ③ 10. ②
 11. ④ 12. ③ 13. ② 14. ⑤ 15. ⑤ 16. ① 17. ③ 18. ③ 19. ① 20. ②
 21. ③ 22. ⑤ 23. ② 24. ③ 25. ④ 26. ③ 27. ④ 28. ① 29. ④ 30. ④
 31. ② 32. ② 33. ① 34. ③ 35. ③ 36. ② 37. ① 38. ② 39. ① 40. ③
 41. ③ 42. ④ 43. ① 44. ⑤ 45. ④

[1~5] 화법

[1~2]

1.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지현의 ‘연못 말고 다른 사례를 ~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말아야.’로 보아 원리가 적용된 사례가 제시되기는 했지만,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경완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수미의 ‘이 현상의 원리를 설명해야겠어.’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지현의 ‘이 원리를 알아 두면 실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덧붙이면 좋겠어.’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지현의 ‘마무리할 때 친구들이 발표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질문해서 확인해 보는 게 어때?’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수미의 발표를 보면 물이 어는 원리와 관련된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발표에서 시각적 효과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과학 시간에 ~ 배웠는데, 기억나시죠?’라는 발언으로 물질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런데 바로 뒤를 이어 ‘물은 4°C에서 0°C로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작아집니다.’라는 발언으로 물이 어는 현상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발표에는 어떤 전문 용어에 대해서도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 발표에는 물이 어는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실험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

3. 이어질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진행자가 종합해야 하는 댓글 내용은 ‘759, 남의 집을 기웃거림’, ‘758,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시끄럽게 굴’, ‘757, 낙서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기’, ‘756, 벽화 보존에 대한 걱정’ 등이다. 여기서 759와 758은 사생활 보호, 757과 756은 벽화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모두 다룬 ④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댓글 756이 벽화의 보존에 관한 내용이지만 벽화의 훼손 실태나 그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 ②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효는 댓글의 내용과 관련성이 떨어진다. ③ 댓글 758의 전반부에 마을 주민이 화를 내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후반부에는 자신이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관련이 없다. ⑤ 소음 피해 최소화와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은 댓글 758의 내용만을 반영하고 있다.

[4~5]

4. 의사소통 전략의 기능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전략의 기능을 묻는 문항이다. ㉠에서 소연은 창완의 발화에 대해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라고 공감을 표현한 후, 창완의 마음에 어떤 장면이 와 닿았는지를 물음으로써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②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소연은 ‘한복이 진짜 멋지더라’는 창완의 발화의 일부를 반복함으로써 창완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③ 이전 발화에서 창완이 말을 중단하자, 소연은 ㉡ ‘괜찮아, 말해 봐.’라고 창완이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④ ㉢에서 소연은 ‘부자간의 갈등이 ~ 인상적이었어’, ‘영화를 보면서 ~ 자꾸 떠오르더라고.’ 등 창완의 발화를 토대로 창완이가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⑤ ㉣에서 소연은 ‘너 정말 맘이 불편하겠구나.’라고 창완의 감정을 파악하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라며 창완에게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인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공손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문항이다. <보기>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표현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는 ‘제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속상하셨죠?’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원인이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밝힌 후 ‘제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아버지가 우리 세대를 잘 모른다는 것과 아버지에게 시대가 달라졌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③, ④는 ‘제가 불손하게 행동해서 놀라셨죠?’, ‘제가 건방지게 굴어서 당황하셨죠?’, ‘그래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죄송해요.’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자신에게 부담을 부여하고 있는 듯하지만, ‘아버지께서 제 취향을 몰라주신 게 화가 났다’, ‘아버지께서 심하게 혼내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자주 소리치고 화를 내셔서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자신이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아버지에게 찾으며 아버지에게 더 큰 부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6~10] 작문

6. 작문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가족’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부여 받고, 글쓴이는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글쓴이는 작문 일지를 통해 구체적인 주제 정하기, 제재 연상하기, 예상 독자 설정하기, 개요 수정과 고쳐 쓰기 등을 통해 좋은 글이 완성되기 위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작문 일지에는 ‘내 글을 읽을 반 친구들에게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 고민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예상 독자는 어머니가 아니라 반 친구들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표현을 다듬기도 하고, 쓴 내용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계획한 글의 개요를 수정하기도 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글의 주제가 하나로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피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기로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족 여행, 어머니의 사랑, 우리 집, 영화, ……」 등을 무작정 떠올려 보고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글을 쓰기로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7~8]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④의 (가) 그래프에서 청소년 체험 활동의 유형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종류가 다양화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그래프를 통해 초등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체험 활동 참여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 ‘시간이 없어서’나 ‘비용이 부담되어서’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자료 해석은 적절하다. ③ (다)에서 체험활동이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 자기 조절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발달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청소년의 체험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나)에서 언급한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에 전문가가 주장한 것처럼 국가와 자치 단체, 그리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자료 활용은 적절하다.

8.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 홍보 문구 제작을 위해 제시된 조건은 첫째, 자료 (나)에 제시된 이유 즉, ‘시간, 비용, 정보, 필요 및 흥미’ 중 두 가지를 활용하라는 것과 둘째, 문답법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⑤의 경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후, ‘구청 홈페이지로 오세요.’라고 답하고 있어 문답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비용을 지원하는 재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에 제시된 이유 중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의 경우, ‘무료’와 ‘정보’라는 (나)의 이유 중 두 가지를 반영하고는 있으나,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의 경우, ‘~ 궁금하지 않으세요?’라고 묻고 그 답을 던지고 있으나, (나)에 제시된 이유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③의 경우, (나)에 제시된 이유 중에 ‘정보’와 관련된 이유 한 가지만 반영하고 있으며, 문답법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에 제시된 이유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홍보 문구의 내용도 청소년의 체험 활동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9~10]

9.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기억력’에 대한 글을 써 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막상 시험을 치를 때 공부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거나, 고생해서 만든 과제를 잊고 학교에 갔었던 상황 등 일상에서 경험했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즉 20초 동안 대상을 집중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제안을 소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ㄱ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 구체적인 문제 상황은 제시되어 있으나, 친숙한 대상에 비유한 표현을 찾기는 어렵다. ② ㄱ에서 언급하고 있는 친숙한 대상에 대한 비유를 찾기 어려우며, ㄴ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간의 순서에 따른 설명을 찾기 어렵다. ④, ⑤ ㄴ에서 말하는 공간적 순서에 따른 설명을 찾기 어렵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단어 수준에서부터 연결 관계와 호응,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고쳐쓰기를 수행하고 있다. ㉠의 경우,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들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주어인 ‘전문가들은’을 고려하면 서술어인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로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 ‘그러므로’는 이유나 원인,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에 해당하는 ‘그렇다면’으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의 ‘-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미이므로, 선택의 의미를 가지는 ‘-든’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의 ‘저장되어진다고’는 ‘-되다’와 ‘-어지다’의 피동형이 중첩되어 사용된 표현이므로 이를 피하여 ‘저장된다고’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은 글 전체의 내용인 기억력 향상과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1~15] 문법

11. 음운 현상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제시된 사례들의 정확한 발음을 파악하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단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제시된 8개의 사례는 각각 ‘부엌[부억], 간[간], 옷[온], 빗[빈], 달[달], 섬[섬], 앞[압], 창[창]’으로 발음된다. 정답은 ④로, ‘박’이 [박]으로, ‘밑’이 [민]으로 발음되는 현상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부엌[부억]’을 통해 ‘ㄱ’이 음절 끝의 자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점과 ‘옷[온]’, ‘빗[빈]’을 통해 ‘ㄷ’이 음절 끝의 자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박]’, ‘밑[민]’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사례로 적합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사례 중에서 ‘부엌’은 [부억]으로 발음되어 음절 끝의 자음이 ‘ㄱ’에서 ‘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② ‘부엌[부억]’, ‘앞[압]’은 거센소리(ㅋ, ㅍ)일 때 음절 끝 자음이 바뀐 경우이고 ‘달’, ‘섬’, ‘창’은 예사소리(ㄹ, ㅁ, ㅇ)일 때 음절 끝 자음이 바뀌지 않은 경우이지만, ‘옷[온]’, ‘빗[빈]’을 보면 예사소리(ㄴ, ㄷ)일 때에도 음절 끝 자음이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은 타당한 진술이 아니다. ③ ‘옷[온]’, ‘빗[빈]’을 통해 ‘ㄷ’으로도 바뀐 경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은 타당한 진술이 아니다. ⑤ 위의 사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부억), ㄴ(간), ㄷ(옷, 빗), ㄹ(달), ㅁ(섬), ㅂ(앞), ㅇ(창)’이다. 따라서 이를 ‘ㄱ, ㄴ, ㄹ, ㅁ, ㅂ, ㅅ, ㅇ’라고 진술한 ㉤은 타당하지 않다.

12.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형태는 같지만 품사는 다른 단어에 대한 특성을 탐구하여 이를 특정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보기 1>에서 ㉠의 ‘달리기’는 명사로서 관형어 ‘하는’의 수식을 받으며, ㉡의 ‘달리기’는 동사로서 부사어 ‘빨리’의 수식을 받는다. <보기 2>에서 ㉢과 품사가 같은 것, 즉 명사인 것은 ㉣와 ㉤인데, ㉣는 ‘추-’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현란한’의 수식을 받으며, ㉤는 ‘걸-’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학생들의’의 수식을 받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는 ‘웃-’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멋쩍게’의 수식을 받으며, ㉧는 ‘그리-’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잘’의 수식을 받는다.

13. 사동사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나타나는 문법적 현상에 대해 제시된 사례를 통해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이다. ㉠과 ㉡의 A(주동문)에서는 서술어 ‘숨는다’와 ‘낮다’가 각각 ‘동생이’와 ‘실내 온도’라는 주어만을 필요로 함에 비해,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누나가’라는 주어에 더해 각각 ‘동생을’과 ‘실내 온도를’이라는 목적어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에서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문장의 서술어가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 현상’을 가리키는데,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할 때는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 부사어, 보어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할 때는 두 자리 서술어, “형이 누나에게 선물을 주다.”의 ‘주다’처럼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세 가지를 필요로 할 때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A(주동문)의 주어는 ‘동생이’인데, C(‘-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동생을’이라는 목적어로 바뀌었다. ㉡에서 A의 주어는 ‘동생이’인데, C에서는 ‘동생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었다. ③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가리키는데, ㉢과 ㉤의 A(주동문)와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모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겹문장이 아니다. ④ ㉥ A의 서술어 ‘차다’는 타동사인데 B의 사례가 없음을 통해 ‘공을 차다’의 서술어 ‘차다’에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 A(주동문)의 서술어 ‘먹다’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 ‘먹이다’라는 사동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⑤ ㉧ A(주동문)의 서술어 ‘낮다’는 형용사이고, ㉨의 A의 서술어 ‘차다’는 동사이다. 또한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도, ㉩의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와 C(‘-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14. 높임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우리말의 높임법인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의 개념 및 특징을 특정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에 쓰인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 표현으로 쓰였는데,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였기 때문이다. ㉡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과 조사 등을 살려 단순화하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정도가 될 것인데, 이때 ‘모시다’는 목적어(객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내가) 이제 오는구나.”의 의미인데, 이때의 ‘-는구나’는 대화의 상대인 청자(동생)를 낮추기 위해 쓰인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였다는 진술은 잘못이다. ② ㉣은 “아버지(가) 안 계신 거야?”의 의미인데, 이때의 ‘계시다’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높임 표현이다.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다. ③ ㉤은 “(우리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얼른 나가자.”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다. ‘아버지께’가 문장의 부사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높임 표현이 아닌 ‘아버지에게, 아버지한테’를 상정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④ ㉥은 “아버지께서 너(를)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고 하셨어.”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다. ‘아버지께서’가 문장의 주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께서’는 객체인 ‘아버지’가 아니라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이다.

15.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특정 어휘에 대한 국어사전의 기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의 ‘바래다’는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바래다’㉠이 아닌 바래다’㉡의 용례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다의어(多義語)는 둘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말하는데, 바라다’과 바래다’ 모두 각각 ㉢과 ㉣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다의어에 해당한다. ② 국어사전에서 【 】 표시는 일반적으로 해당 단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나타낸다. 바라다’과 바래다’㉠ 모두 【…을】이 표시된 것으로 보아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바라다’은 ㉢ ‘(누가) 요행을 바라다.’, ㉣ ‘(누가) 돈을 바라다.’의 문형으로 쓰이고, 바래다’㉡ 역시 ‘(누가) 이불을 바래다.’의 문형으로 쓰이는 점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에 쓰인 ‘*바래’는 바라다’㉠의 뜻을 지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바라다’의 ‘바라-’에 종결 어미 ‘-아’가 붙어 줄어든 ‘바라’가 정확한 표현이다. 한글 맞춤법 제34항에서는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다’의 어간 ‘가-’에 ‘-아’가 어울릴 때 “*집

에 가아.”가 아니라 “집에 가.”로 적는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라- + -아’는 ‘바라’가 정확한 표현이다. ④ 국어사전에서 []는 일반적으로 발음 정보를 나타내는 데, 아래다¹의 발음이 [바:--]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첫 음절 ‘바’를 장음(:)으로 발음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16~30] 독서

[16~18] 과학, ‘태양빛의 산란’

지문해설 : 이 글은 태양빛에 포함된 가시광선이 여러 빛깔로 나뉘게 되는 산란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란은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라, ‘레일리 산란’과 ‘미 산란’으로 나뉘게 된다. 레일리 산란과 미 산란에 의해 하늘빛은 파랗게, 구름빛은 하얗게 보이게 된다는 것을 입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주제]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른 산란의 원리와 유형

16. 글의 중심 내용

정답해설 : 글의 중심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확인해서 정리해야 한다. 이 글의 1문단에서는 산란의 개념을 제시한 후, 산란을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의 관계라는 원리에 따라 레일리 산란과 미 산란으로 구분했다. 2문단에서는 레일리 산란의 구체적인 양상을, 3문단에서는 미 산란의 구체적인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은 ‘산란의 원리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무지갯빛의 형성 원리는 1문단에서 산란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므로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기 어렵다. ③ 빛의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는 1문단, 2문단, 3문단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산란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므로 중심 내용이 되기 어렵다. ④ 3문단에서는 미 산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구름의 색을 미 산란의 구체적 사례로 들고 있다. 따라서 미 산란의 원리와 구름의 색은 3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전체의 중심 내용이 되기는 어렵다. ⑤ 1문단에서 가시광선의 종류와 파장의 관계가 언급되고, 2문단에서 가시광선의 종류와 산란의 세기가 언급되고 있지만, 모두 산란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된 것이므로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이 되기 어렵다.

17. 내용 추론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레일리 산란의 경우 ‘산란의 세기는 보랏빛이 가장 강하겠지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사람의 눈이 파란빛을 가장 잘 감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파란빛이 가시광선 중에서 레일리 산란의 세기가 가장 크다.’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하므로 진동수는 보랏빛이 가장 크고 붉은 빛이 가장 작다.’라고 했으므로 이 빛깔 사이에 들어 있는 파란빛은 보랏빛보다 진동수가 작다고 볼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흰색의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 붉은빛부터 보랏빛까지의 무지갯빛으로 분해된다.’라고 하였으므로, 프리즘으로 분해한 태양 빛을 다시 모으면 흰색이 된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④ 2문단에서 레일리 산란의 ‘세기는 파장의 네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고, 1문단에서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한다고 하였으므로 산란의 세기는 진동수의 네제곱과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3문단의 8행 ‘대기가 없는 달과 달리 지구는 산란 효과에 의해 파란 하늘과 흰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이다.’로 미루어 보아 달의 하늘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와 같은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 현상에 대한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보기>에 나타난 산란 현상을 지문의 내용에 비취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가)에서 비가 오기 전에는 ‘직경 10~20nm의 먼지 미립자가 균질하게 분포하였다’에서 먼지 미립자의 직경이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390~780nm)의 1/10(39~78nm)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 따라서 먼지 미립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가 온 후는 ‘먼지 미립자가 관측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므로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에서는 지표 근처의 낮은 하늘이 뽕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보이고, 흰 구름이 낮게 떠 있다고 하였고, 이때의 대기에서는 직경이 10,000nm 정도의 에어로졸이 균질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때의 지표 근처의 낮은 하늘에서는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390~780nm)의 1/10(39~78nm) 범위를 초과한 에어로졸 입자에 의한 미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 도시에서 낮은 하늘이 뽕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보인 것은 미 산란 때문이겠군.’은 타당한 진술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A 도시에서 ‘비가 오기 전에 직경 10~20nm의 먼지 미립자가 균질하게 분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때 먼지 미립자의 직경이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390~780nm)의 1/10(39~78nm)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므로 먼지 미립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 하늘이 파랗게 보였다. 그리고 비가 온 후에는 먼지 미립자가 제거되어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서 더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④ B 도시의 높은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낮은 하늘의 구름이 희게 보이는 것은 직경이 10,000nm 정도의 에어로졸 입자가 미 산란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⑤ A 도시에 비가 온 후에는 ‘먼지 미립자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맑은 날에는 공기 입자에 의

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이때에는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B 도시의 낮은 하늘에서는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390~780nm)의 1/10(39~78nm) 범위를 초과한 에어로졸 입자가 분포하므로 미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9-21] 기술, 플래시 메모리

지문해설 : 이 글은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1개의 셀은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하는데,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차 있으면 1, 비어 있으면 0의 상태가 된다. 이 정보를 읽을 때는 D(드레인) 쪽에 3V의 전압을 가해 주는데, 이때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흐르지 않고, 전자가 없으면 전자가 흐르게 된다. 이 전자의 흐름을 통해 셀의 값을 확인한다. 그리고 G(제어 게이트) 혹은 p형 반도체에 20V의 전압을 가해 주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를 채우거나 없앨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쓰기과 지우기를 할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는 셀 면적을 줄일 수 있는 EPROM이 가진 장점과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는 EEPROM이 가진 장점을 취하였으며, 비휘발성 메모리이므로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제]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작동 원리

19.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1문단에서 메모리 셀이 그림과 같은 트랜지스터 한 개로 되어 있음을 밝힌 후 이를 바탕으로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읽기와 지우기, 쓰기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은 앞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문단에 언급되어 있으며, 사용 방법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플래시 메모리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기능에 대한 간단한 언급은 있으나 그것을 크기를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지는 않았다. ④ 플래시 메모리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제작 원리를 알려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플래시 메모리의 단점이나 새로운 방식에 관한 내용은 없다.

20. 글의 내용 재구성

정답해설 : 3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터널 절연체는 전류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전자를 통과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절연체를 사용했을 경우 전류의 흐름을 항상 차단하기 때문에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를 채우거나 비우는 작업, 즉 데이터를 쓰거나 지우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D에 3V의 전압을 가하는 것은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 유무를 확인하기(데이터 읽기) 위한 것이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자가 없으면 흐르는 것이지 전자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데이터 지우기 과정에서 자외선에 칩을 노출시켜야 하는 것은 5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EPROM에 대한 설명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④ 5문단에서 EEPROM은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한 반면 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셀 면적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것은 EPROM이다. ⑤ 5문단에서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과 4문단에서 설명하듯 데이터의 저장은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지워야 하는데, 이때는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20V의 전압을 가한다. <보기>에서 ㉠과 ㉡에 20V의 전압을 걸어 주는 것이다. 2단계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을 쓰려는 셀의 G에 20V, p형 반도체에 0V의 전압을 가한다. <보기>에서 ㉢에 20V의 전압을 걸어 주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p형 반도체에 20V의 전압을 걸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p형 반도체로 이동하고, G에 20V의 전압을 걸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플로팅 게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1을 0으로 만들고, 0을 1로 만들기 위해 1단계에 ㉠과 2단계에 ㉢에 전압을 걸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3문단에서 '데이터 지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을 0으로 만들고 난 뒤 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지 않다.

[22-25] 예술, 캄피돌리오 광장

지문해설 : 이 글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로마의 캄피돌리오 광장의 조형적 특성과 공간 구성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광장의 타원형 공간 구성이 신성한 돌 움팔로스를 본뜬 것으로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으며, 중앙에 있는 기마상으로 인해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형의 공간으로 전환이 되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제] 캄피돌리오 광장의 조형적 특성과 공간 구성의 의미

22.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광장의 중심인 기마상이 서 있는 곳의 별 장식은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곳이 우주의 중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은 중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타원과 원의 조합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② 광장에 놓은 것은 신성한 돌인 옴팔로스의 형태를 본뜬 것이지, 옴팔로스를 배치한 것은 아니다. ③ 옴팔로스는 중심을 뜻하는 것이며, 캄피돌리오 광장에서는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을 표현한 것이므로 확산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1문단에서 기마상에서 뺀어 나온 광장의 문양들은 기하학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대칭성과 관련이 없다.

23.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는 광장이 기마상으로 인해 원으로 인식되면서 두 개의 초점이 사라지고 하나의 중심을 가진 공간으로 변모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두 개의 초점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세계의 중심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원이 가진 집중성으로 인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고대인들은 북극성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3, 4문단에서 주변을 압도하는 위계감,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지배자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24.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원은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과 주변을 향하는 확산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은 집중성을 강조하는 반면, ㉡는 확산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가 집중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어느 곳에 있던 중심의 기마상에 시선을 두게 되지만 ㉡는 원통의 벽면을 향하게 된다. ② ㉠은 중심과 주변의 위계가 형성되지만 ㉡는 중심을 향하는 위계감이 없다. ④ ㉠은 중심이 강조되지만, ㉡는 둘레가 강조된다. ⑤ ㉠은 원의 집중성을, ㉡는 원의 확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5.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분할(分割)’은 나누어 쪼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는 하늘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쪼갬다는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제조(製造)는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떤 형상을 이룸을 뜻하는 형성(形成)이나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의미의 제작(製作)이 더 적절하다. ② 지적(指摘)은 꼭 집어서 가리키거나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한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것을 뜻하는 지칭(指稱)이 더 적절하다. ③ 소진(消盡)은 다 써서 없앤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사라져 없어짐을 뜻하는 소실(消失)이나 소멸(消滅)이

더 적절하다. ⑤ 기립(起立)은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서는 것을 뜻한다. 문맥상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의 '위치(位置)'가 적절하다.

[26~27] 인문, '냉전의 기원에 대한 논의'

지문해설 : 이 글은 냉전의 기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냉전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편의상 '전통주의', '수정주의', '탈수정주의'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전통주의는 냉전을 유발한 근본적 책임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수정주의는 전통주의를 비판하는 견해로, 냉전의 책임이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미국의 정책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탈수정주의는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주장을 절충한 견해로, 냉전의 책임을 어느 한 쪽이 아닌, 양국이 추진한 정책의 '상호 작용'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런데 탈수정주의의 연구 성과는 무난해 보이지만, 역사적 현상의 중심적 경향성을 파악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주제] 냉전의 책임 소재에 대한 세 가지 연구 결과

2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수정주의는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미국의 정책으로 냉전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통주의는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세계를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에서 미국이 봉쇄 정책을 수행했다고 보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봉쇄 정책이 소련의 공격적 팽창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주장은 수정주의 견해가 아니라 전통주의 견해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소련은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특히 동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수행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의 '수정주의는 기본적으로 냉전의 책임이 미국 쪽에 있고, 미국의 정책은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이로 인해 냉전 책임론은 크게 후퇴하고 구체적인 정책 형성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절충적 성향을 가진 탈수정주의 시각은 역사적 현상의 중심적 경향성을 파악하여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 자료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가)는 미국과 소련이 각기 자국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하자, 양국은 상대방의 조치를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식하여 대응 조치를 강화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국의 안보를 더 위태롭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결국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게 된 것이 어느 한 쪽의 책임이 아닌 양국이 추진한 정책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했다는 견해와 방향성이 같다. 따라서 (가)는 ㉠의 탈수정주의 견해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미국이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봉쇄 정책을 폈더라면 동유럽이 소련의 영향 아래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결국 소련이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동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수행했다는 견해와 방향성이 같다. 따라서 (나)는 ㉡의 전통주의 견해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는 세계 철강 총생산량이나 에너지 소비량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훨씬 앞서므로 국력 면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압도적이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소련이 미국에 비해 국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적극적 팽창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견해와 방향성이 같다. 따라서 (다)는 ㉢의 수정주의 견해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28~29] 사회,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지문해설 : 이 글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요건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하는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고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즉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 그런데 공해 사건에서 인과 관계라는 요건은 입증이 어려워 문제가 된다. 더구나 관련 기업은 월등한 위치에서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기에 피해자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공해 소송에서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여전히 원고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지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있다.

[주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28.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소송에서는 손해 배상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 반드시 요건들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입증 책임을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지도록 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인과 관계’이다. 따라서 개연성이 인정되면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이 성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한 요건들의 입증 책임은 부담이 덜한 쪽에 지우는데, 그 사람은 상

대방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이다. ④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고의나 과실’을 포함한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입증 책임은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가 부담하고, 입증 책임 당사자는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입증 책임자가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공해 소송에서 공장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 관계’라는 요건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즉 <보기>에서 제시한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2)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다. 3) 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입증되어야 인과 관계가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지문에 진술된 것처럼 공해 소송에서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고 있다. 그래서 <보기>의 대법원은 세 가지 중에서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라는 것만 증명되면 인과 관계의 입증을 인정하여 입증의 정도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과 관계의 입증 책임은 여전히 원고인 어민들에 있다. 따라서 인과 관계의 입증 책임이 피고인 회사 쪽에 있다고 진술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입증해도 인과 관계를 인정한 것은 어민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주려 한 것이다. ② 4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인과 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이다. ③ <보기>에서 대법원은 어민들이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 관계의 입증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④ 5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원고가 인과 관계를 입증하면 피고는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0] 생활독서, 독서 과정

30. 독서 방법의 파악

정답해설 : 마지막 문단에 ‘역사가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로군.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네.’ 부분을 통해 볼 때, 학생이 글쓴이의 관점을 확인하는 내용은 있지만,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메모하면서 책을 계속 읽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의 ‘나는 역사책을 좋아하니까 ~’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45] 문학

[31~33] 현대시 - 김소월, '접동새'

지문해설 : 이 시는 설화에서 모티프를 가져와 보편적 정서인 한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슬피 우는 접동새를 보며 의붓어미의 시샘에 죽은 누이를 떠올리고 있다. 누이는 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으로 죽은 후 접동새가 되어 떠돌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죽은 누이의 애절함과 누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주제] 현실의 비극적 삶을 초월한 혈육의 정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시에서는 명령형 문장을 찾을 수 없다. '누나라고 불러 보랏'에서 '-랏'은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시의 주된 정서는 한으로서, 의붓어미의 시샘으로 인한 누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애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시는 '진두강 가람 가', '진두강 앞마을' 등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고향이나 시골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④ 이 시에서 행의 길이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같은 연에서도 상대적으로 길고 짧은 행이 교차되고 있다. ⑤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이라는 시구가 2연과 3연에서 반복되는데, 누나가 접동새가 되어 운다는 것과 그 이유를 결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시의 화자는 '누나'에 대해 시종일관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누이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연민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나'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3연에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연에서는 '누나'가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울음이 비극적으로 죽은 '누나'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③ 3연에서는 2연의 '누나'가 의붓어미의 시샘 때문에 죽었다는 비극적 사연이 제시되어 있다. ④ 4연의 '오오 불설워'는 화자의 서러움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구절이다. '불설워'는 '몹시 서럽다'라는 뜻의 방언이다. 따라서 직설적으로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⑤ '우리'는 흔히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므로, 화자와 '누나'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김소월의 시에서는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 한이 생긴다고 했다. 5연을 보면 죽어서도 동생들을 ‘차마’ 못 잊어, 밤이 깊어도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며 슬피 운다고 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체념적 상황에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한 ‘누나’의 한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시샘’이 ‘시새움’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누나’가 의붓어미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시에서는 찾을 수 없다. ③ ‘이 산 저 산’ 떠도는 새의 모습은 동생들을 잊지 못하는 ‘누나’를 의미하므로 모든 희망을 버리고 방황하며 체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체념하고 있을 때는 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④ ‘누나’가 ‘야삼경’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동생들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⑤ ‘오래동생’과 이별하는 ‘누나’의 심경은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슬피’ 우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것은 ‘누나’가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행동이나 태도가 아니다.

[34~37] 현대소설 - 채만식, ‘미스터 방’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미국이라는 외세에 빌붙어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주인공 방삼복에 대한 희화화와 풍자를 통해, 해방 직후의 혼란스럽고 부패한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채만식의 소설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해방이 되어도 기뻐할 줄 모르던 신기료장수인 방삼복은 귀동냥으로 배운 서툰 영어로 우연히 미군의 통역을 해 주면서 갑자기 출세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코빼퐁이’라는 별명은 ‘미스터 방’이라는 별명으로 바뀌게 되고, 미군의 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으며 부를 축적하게 된다. 방삼복과 함께 이 소설의 또 다른 풍자의 대상인 백 주사는 전형적인 친일파로, 해방과 함께 몰락하게 되자 새로운 권력을 이용하여 일제 강점기 때 누렸던 기득권을 되찾고자 하는 인물이다. 시대의 격변기에 하루아침에 지위가 뒤바뀐 방삼복과 백 주사를 통해, 작가는 해방 직후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권력에 기생하며 득세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들과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지문에 출제된 부분은 방삼복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방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부분과 백 주사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복수를 방삼복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다.

[주제]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해방 직후 혼란한 사회상에 대한 풍자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는 주요 등장인물인 방삼복과 백 주사의 심리 상태는 물론, 해방을 맞이하여 자기의 이익에 따라 희비가 달라지는 방삼복의 작중 상황이나 백 주사가 예전의 부를 되찾기 위해 불쾌하지만 방삼복에게 비굴하게 처신하는 사건 등을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의 소설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 아니다. ② 이 작품은 서술자가 작중 인물로 등장하여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 아니다. ④ 지문 속에 회상과 관련된 장면은 없으며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는 액자소설식 구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⑤ 지문의 사건은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 전개상의 입체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35.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에 신기료장수인 방삼복 혼자 값을 올려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료를 파는 업자들도 값을 올려서 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만 올랐지, 자신이 얻는 소득은 예전과 비슷하다는 불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해방의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인식 자체를 갖지 못한 방삼복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방삼복은 해방으로 인해 새로운 국가를 수립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물론 이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표현되어 있다. ② ㉡은 순사가 없어져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한 치안 부재의 상황을 표현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방삼복이 슬픔과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④ ㉢은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로 권력과 부를 누리던 과거의 영화는 사라지고 몰락하여 초라함을 느끼고 있는 백 주사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⑤ ㉣은 갑자기 득세하여 미스터 방이 된 방삼복이 술을 먹으면서 생긴 버릇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혼란스러운 내면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36.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친일파로 일제에 기생하며 부와 권력을 누렸던 백 주사의 몰락을 가져온 해방의 시대 상황은 올바른 역사의 흐름이지, 개인을 억압하는 부당한 시대 변화로 볼 수 없으므로 ②는 올바른 감상 활동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해방된 사회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방삼복의 출세는 해방 직후의 사회의 혼란상을 통해 부정적 단면을 보여 주므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은 올바른 감상으로 볼 수 있다. ③ 백 주사가 자신의 몰락을 가져온 상황을 반전시켜 옛날의 기득권을 되찾고자 미국의 권력을 등에 업은 방삼복

을 이용하려는 것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지 못한 부정적인 인물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④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독립을 기뻐했다가 다시 불리할 때는 해방의 상황을 욕하는 방삼복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그가 현실을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이므로 이를 비판하는 활동은 올바른 감상이다. ⑤ 해방 전 자기가 권력을 누릴 때 대수롭지 않았던 존재였던 방삼복이 미군정 시대에 권력을 행세하는 존재가 되면서, 마음속으로는 불쾌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굴하게 부탁하는 백주사의 이중적 태도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판적 감상이 가능하다.

37. 상황에 적절한 속담 적용

정답해설 : ㉔는 백주사가 방삼복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간 대상에게 분풀이를 하고 동시에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므로, 한 가지 일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의미하는 ‘뽕 먹고 알 먹는다.’가 이에 부합하는 속담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㉒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곱절이나 많이 받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㉓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 빈 외양간을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㉔ 상대방이 자기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자기도 상대방에게 좋게 한다는 뜻으로, 말은 누구에게나 점잖고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㉕ 욕을 당한 자리에서는 말 못하다가 뒤에 가서 불평하는 것으로, 화가 난 마음을 애매한 다른 곳에 옮겨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38~40] 고전시가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봉건적 가족 관계 속에서 여인들이 겪는 시집살이의 괴로움과 고통을 노래한 민요로, 경북 경산 지방에서 채집된 것을 현대어로 풀어서 기록한 것이다. 친정에 다니러 온 여인과 사촌 자매 사이의 대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 반복, 열거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당대 여인들의 시집살이 상황을 해학적이고 익살스럽게 그려 냄으로써 힘든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한

38.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사촌 자매에게서 시집살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형님은 시집살이를 ‘개집살이’라고 부정적으로 규정한 다음 고된 노동이나 시집 식구들을 대하는 어려움 등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시집살이의 고충과 한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노래는 감탄의 어조와 반성의 어조가 교차하며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주로 한탄의 어조를 느낄 수 있으며, 반성의 어조는 찾을 수 없다. ③ 이 노래에서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어울리게 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이 노래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는 전개 방식을 찾을 수 없으며, 중심 화자(사촌 형님)의 심리도 특별한 변화 없이 괴로운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⑤ 시집살이의 고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나 이를 내면과 대비하는 것은 아니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9.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살이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꺼낸 말로 볼 수 있다. 이 노래는 사촌 동생의 시집살이에 대한 물음에 친정에 다니러 온 형님이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사촌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를 형님이 만류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오 리 물’, ‘십 리 방아’, ‘아홉 솔’, ‘열두 방’ 등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처리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과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호랑새’, ‘꾸중새’, ‘할림새’, ‘뽕족새’, ‘뽕중새’, ‘미련새’ 등 시집 식구들을 새에 비유하여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오랜 기간 동안 며느리가 귀머거리나 장님, 병어리처럼 처신해야 함을 제시해 시집살이의 속박을 참고 견뎌야 하는 며느리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⑤ 결혼 전의 아름다운 용모를 ‘배꽃 같은 얼굴’에 빗대고, 결혼 후의 형클어지고 쇠한 용모를 ‘호박꽃’에 빗대어 힘겨운 시집살이로 인한 용모의 변화를 한탄하고 있다.

40.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는 사촌 형님과 사촌 동생이 주고받는 대화이고, <보기>도 두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이다. 즉 [A]와 <보기>는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A]의 두 여인은 친척 사이이고, <보기>의 두 여인은 ‘본 듯도 하구나’, ‘어와, 너로구나’ 등의 구절로 미루어 친분이 있는 사이로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A]의 사촌 형님과 <보기>의 ‘각시’가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인 ‘동생’과 ‘너’를 만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는 ‘형님 온다’, ‘형님’, ‘이애’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으나, <보기>는 시어의 반복이 아니라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② [A]와 <보기>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에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보기>는 특정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계절의 변화나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

의 정서를 심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A]에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에서는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임금이 계시는 대궐을 빗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유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41~43] 고전소설 - 김만중, ‘구운몽’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유배지에 있던 김만중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고전 소설로,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통한 허무의 극복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전체 내용은 성진이라는 불제자가 원하던 부귀영화를 꿈속에서 이루지만 이것의 허망함을 깨닫고 다시 불교에 귀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현실-꿈-현실’이라는 액자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데, 현실은 초월적 세계로, 꿈은 현실적 세계로 설정한 것이 특이하다. 세속적 욕망을 원하던 성진은 꿈에서 양소유로 태어나 부귀영화를 이루지만 이것이 결국 덧없음을 깨닫고 불교에 정진한다. 유교의 공명주의와 불교의 공(空) 사상, 도교의 신선 사상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주제]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통한 허무의 극복

4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랑의 성진 행자임을 깨달았다.’는 성진과 그 주변 환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것은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는 성진의 내적 독백이지만 이것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성진과 육관 대사의 대화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구체적인 시대 상황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 ⑤ 서술자가 개입하거나 이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42.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노승이 양소유에게 아직도 춘몽에서 깨지 못했다라고 하자, 양소유가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라고 말하는 데에서 그가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소유가 팔 낭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성진의 말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육관 대사의 말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성진의 생각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성진의 생각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의 ‘첫 번째 회의를 부정’은 성진이 아직 꿈속 삶(세속적 삶)을 살기 전의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회의를 부정’은 꿈속 삶의 세속적 가치관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회의를 부정’은 성진의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은 꿈속 삶(세속적 삶)이기 때문에 ‘첫 번째 회의를 부정’을 경험한 이후의 일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은 꿈속 삶으로 ‘첫 번째 회의를 부정’과 ‘두 번째 회의를 부정’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③ ㉡은 성진이 꿈속 삶에서 깨어난 후의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육관 대사의 가르침이 있기 전이므로 ‘두 번째 회의를 부정’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다. ④ ㉢은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가르침을 성진에게 주기 위해 비유한 것이므로 ‘세 번째 회의를 부정’ 단계의 핵심 내용을 보여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은 육관 대사의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깨닫지 못한 성진이 가르침을 달라는 내용이므로 ‘두 번째 회의를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를 부정’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44~45] 수필, 윤오영, ‘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상념을 주로 노년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수필이다. 사계절 중 하나로서의 봄과 청춘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 희망찬 앞날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의 의미를 결합하여 봄을 맞이하는 상념을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것이라고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봄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해 줄 것이라고 담담하게 적고 있다.

[주제] 노년에 맞이하는 봄의 기쁨과 봄을 바라보는 자세

4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수필은 봄은 젊은이의 것이라는 통념, 늙어서 봄을 맞이하면 앞으로 봄을 많이 못 볼까 슬프다는 통념 등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개성적인 시선으로 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수필은 흔히 일상적 소재를 취하기는 하지만 작가의 개성적인 통찰이 중요한 장르로서, 이 작품에서도 봄에 대한 개성적인 통찰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분석이란 복잡한 대상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으로 이 수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봄이나 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작품을 볼 수 없다. ③ 자연친화적인 수필이 흔하기는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자연과 대화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④ 글쓴이의 주장을 일반화하기 위해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일반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45. 작가의 세계관, 주제 의식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이 작품에서 겨울을 이겨 내고 파릇파릇 싹이 움 돋기 시작한 ‘동쪽 가지’를 예찬하며 같은 나무 한 등걸인데도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다고 말한다. 싹싹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를 가진 동쪽 가지는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했지만, 서쪽 가지는 눈보라 추운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해 죽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봄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글쓴이가 물의 속성에 비유한 것은 ‘과거’라는 시간 자체이지 ‘늙은이의 봄’만을 한정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글쓴이는 흐르는 세월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② 글쓴이는 봄을 바라보며 과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③ 글쓴이가 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 추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청춘 시절의 봄으로 회귀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두에서 젊은이의 봄은 훌쩍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겹겹의 봄이라고 말하며 노년의 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⑤ 이 수필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다.